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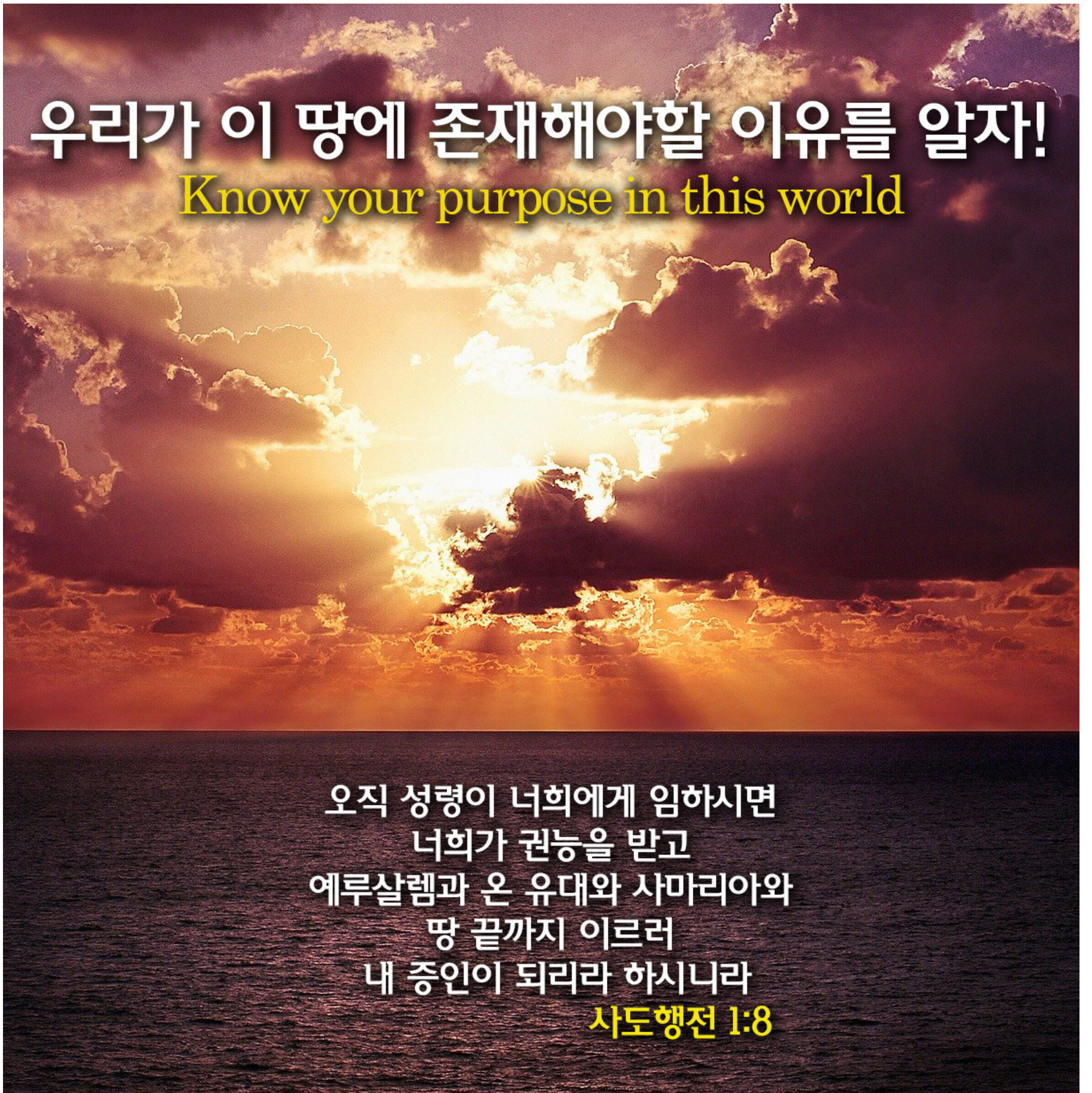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에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1월 5일 (제1036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할 이유를 알자!

Know your purpose in this world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봉우칼럼

존재의 이유

하나님은 무가치한 것을 만들지 않으신다. 잠언 16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씩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심으로 만인과 만물이 다 존재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셨다. 심지어 악인도 존재 이유가 있다신다. 로마서 9장에 보면 횡포자인 바로의 존재 이유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롬9:17).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궁지로 몰아가는 역할을 감당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한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가 없을까? 존재 이유란 곧 삶의 목표다. 나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

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는 말씀대로 복음 전파를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이렇게 존재 이유를 알고 나니 삶의 목표가 생기고, 따라서 삶의 기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가야할 방향이 확실해졌다. 그리고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 어떠한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방인의 빛으로 세움을 받은 사도 바울이 존재 이유를 알고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라”(행20:24)고 고백하지 않았는가. 삶의 의욕이 없는 것은 존재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조그만 장애물 앞에서도 힘없이 무너지는 것은 삶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마귀의 일을 진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욕과 핍박을 당하시고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지만 꾀갯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수하시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다. 2020년, 새해 벽두에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볼 길 바란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살후3:1~3)



복을 받으려면 불신의 고리를 끊어라

몇 해 전인가, 저에게 주일마다 밥을 해 주는 권사님이 심장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때 저는 지방 집회에 가는 중이었지만 이 소식을 듣고는 먼저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그 권사님에게 안수를 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 딸이 종을 위해 수고한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꼭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셔서 지금까지도 저에게 밥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이현구 장로가 쓰러졌을 때도 저는 병원에 찾아가서 이렇게 절박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장로가 교회를 위해 물질을 쓰고 애쓴 것을 기억하시고, 예전처럼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비된 몸을 정상으로 돌려주셨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 회복이 불가하다고 의사들이 말했을 때도 저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비록 늦게 믿기는 했지만, 아들 셋과 딸 하나를 주의 종으로 바친 것을 기억하시고 부서진 다리 뼈가 다 붙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은 의사도 놀랄 만큼 회복되어 식사도 잘 하십니다.

신앙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히스기야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지요. 히스기야가 그의 재위 14년이 되었을 때 밖으로는 산헤립이 침공했고, 자신은 죽을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사38:1)고 통고합니다. 벼랑 끝에 선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사38:3). 이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가 궁궐을 나가기도 전에 마음을 돌이키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 오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사38:5~6)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해 그림자가 뒤로 십도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 대해 무엇을 추억하셨을까요? 히스기야는 즉위하자 곧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산당을 비롯한 모

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왕하18:1~7). 그는 아하스에 의해 닫혀 있던 성전의 문을 열고 이것을 수리했고, 또 유월절을 부활시켰습니다. 또 그는 모세의 율법이 우상 예배의 대상이 되어 있음을 알고 그것도 제거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주의 목전에 선히 행한 자신을 추억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공적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행하였음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아뢰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별료의 구제와 그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행 10:4), 과부 두 렵돈을

보신 하나님(눅 21:2),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을 기억하신 하나님(마26:13)은 우리도 다 보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높이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시139:1~4)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니엘의 마음까지 읽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추억하고, 하나님께 기억된바 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고도 반문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아들 이삭만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

니다.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황급히 아브라함을 불러 저지시키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창22:16~18).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실히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중 차대한 일을 아

내와 그의 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

는가 하면,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내와 의논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때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마10:36)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살후3:2). 또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14:26~27)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원수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는 불신하는 자들과의 고리를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

사를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들어 믿음의 역사를 막습니다. 그들은 타당한 말로, 위로와 격정과 사랑스러운 말로 믿음의 역사를 막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한나가 남편 엘가나의 위로를 받고 안주했다면 사무엘이란 아들을 얻는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걱정하는 가족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머니의 연세를 고려하고 정에 연연했다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좁은 길이 가장 편한 길

하나님께 기억된바 된 자들은 믿음에 타협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내나 남편을, 부모와 자식을, 상사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쏫대를 향하여 질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이유로 타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마10:37).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 침묵에 빠지지 않는 믿음, 불신하는 자들과의 고리를 끊는 단호한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래, 그때 내가 애쓴 것 다 기억한다. 너의 소원을 이뤄 줄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는,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해봅시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 흔들리지 맙시다. 물론 그때 주위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만류하겠지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고, ‘나이를 생각하라’고, ‘애들 생각하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불신하는 자들과의 고리를 끊고 믿음으로 올곧게 나가면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기뻐하사 기억하실 것이고, 당신에게 무한한 축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으로 인해 불신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도 이 축복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보고 믿음이 없던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거듭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타협이 있지만 믿음만은 타협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우리의 사명을 알고 성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잠재력과 큰 미래를 마련해주셨으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 큰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업적에 정체되어있

거나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여기 어떤 일이야? 어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야? 앞으로 더 노력 안할 거야?” 무엇인가 성취하고, 무엇인가 성취하려는 마음의 욕망은, 마치 새싹처럼 불신과 의심과 이전 경험의 아스팔트를 헤치고 나가야 합니다. 가장 큰 가치는 시간입니다.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꿈은 자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의심과 역경이 그것을 억누르고, 일상적인 문제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 꿈은 사라지다가 죽어버립니다. 꿈을 죽게 내버려두

지 마세요! 우리의 꿈이 모든 실패, 문제, 환경, 질병보다 더 강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세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맙시다! 이조석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기적이 특별하고 빛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막연한 기대 속에서 더 빨리 지나가고, 그 후에는 실망만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전과 행동을 통해 모든 것을 갖기 원하십니다. 기적은 우리 자신이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

가를 바꾸거나 낡은 것을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의 삶을 바꾸려는 생각이 올 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주신 아름다운 삶, 그에 대한 우리의 꿈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합시다. 그리고 주의 길을 가십시오. 그리하면 그분은 우리를 통해 불가능하고 기적적인 일들을 해내실 것입니다, 2020년은 하나님의 인도 아래 꿈이 실현되고, 건강이 개선되고, 목표가 달성되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네프로에수중심교회 슬라바 목사**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

라를 내게 맡기신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 22:28~30). 잠시 잠깐이면 이루어질 이 말씀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어느 날 실제 우리 앞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흥분되었습니까. 열두지파를 다스리는 권세, 이 또한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그날을 생각한다면 현재 이 세상에서 받는 핍박과 모함쯤은 즐거운 동반자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일해 봅시다. 세계 온 족속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세계 온 민족에게 알리도록 애써봅시다. 어느 날,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되는 날,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이 가슴 벅찬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올해도 이 약속을 깊이 생각하면서 세계 온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우리 모

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합시다. 올해는 정말 후회 없는 시간들, 그러한 날들이 우리 모두에게 되길 바랍니다.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서 총회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 되어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예배드리고 먹고 마실 때까지,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장애물들을 친구 삼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 이현숙 선교사**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언론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자의 중심을 감동하여 기록하셨고, 수태로부터 부활까지 성령의 인도로 그 공생애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따라 세우신 자신의 교회에 성령을 보내셔서 신약교회를 영도하시므로, 교회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세워지고 또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여 역사한다면 신약교회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일치될 이루게 된다. 그러나 교회라는 외형은 갖추어도 성경을 일탈하면 이 단사설의 기형이 되고 그리스도와 상관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고 만다.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과 예언과 명령으로 들려지고 이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은 그 진리와 생명의 본위를 그대로 드러내심으로, 죄와 사망과 어둠의 지배받던 인생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맞이하는 회개에 이끌리고 흑암의 세월을 배회하던 인생의 눈과 마음이 열려 그 진리와 생명의 세계로 인도받게 된다. 고단한 육체로 인생고에 찌들어 세상만 바라보고 두려움으로 지새던 인생이 하나님의 세계, 그 영원하고 신기한 영의 세계로의 진입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성경을 대하고 살았다는 이력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이끄시는 회개를 접하지 못하면 살았고 운동하는 말씀의 본위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니, 말씀이란 이성을 자극하는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내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영광이요 그 광체(光體)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신약교회에 예수와 성령과 성경을 주셨으므로 교회가 가지는 은혜와 믿음은 성경에서 나오며 그 기록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운용될 때 성도는 각자 제2의 공생애를 살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재단되거나 운위(云謂)될 수 없는,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경영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요 그의 피 소리이면서, 그중에 인간의 본성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은 ‘인간을 보시는 영화로 우신 하나님의 시각’ 앞에 드러난 인생이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다. 이런 연유로 기독교언론은 마땅히 이 둘, 사람의 말과 하나님 말씀 사이의 간극(間隙)을 조화시키는 중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한 중재자로서의 기독교언론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정당하게 반포함으로써, 인간이 정당한 조리와 믿을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는 그 교회연합이야말로 주님의 몸이요, 그 지체들이 되는 것이다. 율법의 요구를 몸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피 뿌린 옷을 입으셨으니(계19:13) 이 땅에서 천대와 박해를 받으셨음이고, 인생 또한 육체로는 탄식과 후회와 고통이 모든 순간에 서려 있는 날을 산다. 복음은 이렇듯 율법에 정죄 받

고 마귀의 참소 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전체 인류가 예수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이요, 우리의 증거는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을 그 몸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만이 죄인을 구속하는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라 함이다. 이제 진리와 생명의 사도인 우리의 증거를 담아 세상에 내놓는 신문이 ①이웃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사랑과 공의, 평화, 나눔, 헌신, 위로 등의 선한 사업에 앞장서고 ②세상 신에게 놀려 종교와 철학과 물질문명, 미신과 불신앙에 포로 되어 있는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영적운동에 진력함은 물론 ③교회 안에서 양육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의 사정을 깊이 알게 하고(요일2:12~17), 하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할 권세 있는 반포자와 사도로 세워나갈(딤후1:3~14) ‘평생교육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이 되게 하자. 독자 체위의 심령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기를 빈다. **대전예수중심교회 박덕규 목사**

:: 성도간증 ::

:: 참된 깨달음 ::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편모슬하에서 어머니의 학대와 온갖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었고, 1989년 우종분님의 인도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술과 외박은 기본이고 온갖 것으로 속 썩이는 남편과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때였습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산후조리를 교회 집사님 댁에서 그분들의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기에 차마 쓸 수 없는 남편의 못된 행각들이 계속되어 저는 이혼을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했으나 교회 집사님 두 분의 기도와 보살핌이 있어 이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나의 삶은 포기하고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고 힘겹게 살아온 나의 삶이 아이들에게 되풀이되게 하고 싶

지 않았습니다. 나만 참으면 저 아이들이 눈에 눈물 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며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특히 우종분 권사님께서 저에게 ‘너는 이혼하면 네 삶은 좀 편할지 몰라도 네 아이들 설희와 영록이는 어떻게 되겠냐?’고 하시며, 아이들은 한쪽 부모의 사람이 아닌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저를 만류하셨습니다. 이혼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했지만 내 삶은 없었고 오직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를 바라며 기도하며 인내하였습니다. 특히 전 남편의 술취함과 여러 정황상 집에 들어갈 수 없을 때마다 우종분 권사님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고 같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권사님은 아픈 저희들을 보살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사님의 기도와 권면 속에서 모두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어떻게 하면 권사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까 기도하며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권사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가을쯤 권사님을 뵈었는데 몹시 아위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여쭙보니 신장이 안 좋았는데 심해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인터넷에서 신장기증에 대해 검색한 결과 타인도 이식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권사님께 걱정마시고 투석보다 이

식이 나으니 투석 받지 말고 내가 신장을 드릴 테니 언제든지 그때가 되면 나에게 먼저 말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여름부터 부쩍 살이 빠진(10kg 이상) 마르신 권사님을 뵈었고, 밥맛도 없고 소화가 안 돼 설사를 하고 죽만 드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권사님께 여쭙보니 다니던 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셨다가에 제가 빨리 삼성병원에 예약하라고 말씀드려 9월 5일 제가 모시고 가서 진료받았고, 그날 우리 두 사람의 혈액을 채취하였고, 그후 이식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항상 그분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기만 하였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작은 무언가라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서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도 없고 오직 제 마음은 하루빨리 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권사님의 건강이 회복되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서로 기도하며 의지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천국가는 그날까지 섬기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부족한 제가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며칠 후면 수술에 들어갑니다. 부디 수술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최영실 집사

:: 교단소식 ::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총회장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께 바치는 생신 축하 노래를 부르니 가슴에 전율이 흐른다. 멀리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새삼 실감되었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예수님은 죄악과 저주, 병과 가난에서 우리를 건지러 이 땅에 오셨다. 부모 생신 때에 자식들이 선물을 드리듯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생신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선물 보파리를 풀어보자.”고 하시며 성탄 축제의 막을 여셨다.

첫 순서는 중고등부의 칸타타. ‘그래도 감

사, 그래서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가슴이 쫓인다. ‘그렇게 살아야지’ 해도 늘 감사에 인색했던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리고 이어진 유아 유치부들의 찬양과 율동, 천지창조 연극까지... 양증맞은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천국은 저런 어린 아이 같아야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이날의 압권은 대학청년부의 ‘하나님의 딸 유관순’이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이 성극은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코자 하는 18살 유관순의 절절한 간구가 잘 묘사되었다. 어린 몸으로 차마 감당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른다 옥중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유관순 같은 열사가 있었기에, 그들의 절박한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목사님은 “국가 없는 민족은 국가가 있는 개보다 못하다. 안보 없는 경제성장은 상상누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10차에 걸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를 한 것이다. 희생 없이 자유가 어디 있겠는가.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립된 것이다. 우리는 원수를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늘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출연진 모두를 일일이 기도해주셨다.

부모님 생신 때 자식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잔치를 베풀면 부모는 그간 고생을 다 잊는다. 우리 예수님도 예수중심교회에서 벌인 생신 잔치를 보시며 기뻐하셨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중심교인들에게 한없는 은총으로 쏟아지리라.

성탄절 예배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신묘수 전도사

2020년을 향해 전진

희망찬 새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총이 임하길 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거친 세파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송구영신하였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에 맞은 아침 햇살은 오늘도 변함없이 떠오를 것이며, 어제 했던 일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신년 벽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난해의 슬픔과 불행, 모든 아쉬움과 인간관계의 상처를 다 청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과거 실패와 좌절의 경험으로 자신의 한계를 정하므로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본 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세상 것이 그리워 뒤를 돌아보게 되면 영생의 유업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후진 기어를 넣으면 뒤로 물러갑니다만, 이것은 방향을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결코 뒤로 주행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좋은 일, 잘한 일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행한 업적이라 하여 마음에 담아두면 쌓아놓은 상급을 잃기 쉽습니다. 옳은 일을 하였을지라도 거기에 계속 머물러 ‘이만하면 됐다’며 안주하게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함은 더 힘찬 전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빌3:13~14).

여명의 새 아침은 이제 밝았습니다. 다시금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2020년! 예수 그리스도의 궤도를 향해 힘찬 전진과 승리가 있길 기도합니다.

김정옥 전도사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장 18~19절)

대망의 2020년!
사막에 길을 내실 하나님
황무지에 꽃을 피울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